

피츠버그 G20 의장 총괄

Barack Obama, president,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The G20 Pittsburgh Summit”

published by the G20 Research Group and Newsdesk Communications

[www.g20.utoronto.ca/newsdesk/pittsburgh.html](http://www.g20.utoronto.ca/newsdesk/pittsburgh.html)

저와 제 아내 미셸은 이번 9월 24-25일에 멋진 도시 피츠버그 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시장으로서 이 도시를 세계에 공개해준 피츠버그와 펜실베이니아의 시민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피츠버그 정상회담은, 우리가 세계 경제 위기에 맞서고, 우리의 번영을 재개하기 위해 해왔던 고된 업무를 계속 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기회 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진행을 함께 재검토 하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평가하며,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논할 것입니다. 21세기 경제로 전환되는 동안, 피츠버그 회의는 새로운 고용과 산업을 창출 할 방법에 관한 도전적인 실례가 될 것입니다. 피츠버그는 철강도시에서 첨단기술 혁신도시 (녹색기술, 연수 및 교육, 그리고 연구와 개발을 포함) 로 되었고, 이 도시는 우리들의 작업에 (이러한) 멋진 배경과 동시에 강력한 예시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경제의 파국을 막으며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1년 전의 우리 경제는 자유낙하(상태)였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제 2차 세계대공황을 예언하였습니다. 경제구조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인 경기 부양 법안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자금을 보내고 피츠버그와 그 주변지역에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세대에 걸친 가업을 이어서 하이브리드 건전지와 에너지 효율이 좋은 21세기형 자동차를 제조하는 이스트 펜사와 같은 회사나, 피츠버그 교외에 위치한 Serious Materials 제조공장 들도 이 법안의 대상입니다. Serious Materials 제조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을 제조하는 회사로, 작년에 문을 닫았지만 (이 법의 원조로) 실업자들을 재고용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의 의료 연구실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부상 당한 미군 뿐 아니라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세포재생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 활성화를 위해 전세계 협력국과 협의 하에 조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G20를 통한 공업생산은 안정되었거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압력은 현저하게 완화되었고 우리의 금융기관들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들이 아직도 직업을 찾고 있는 시기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활동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의 리더로서 이런 종류의 경제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규칙을 적절히 도입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동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책임이) 있습니다. 거품(경제)과 부도의 주기(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제 불균형을 비껴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에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는 장래G20의제의 핵심일 것이며 피츠버그 정상회담은 우리들의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가교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이 도시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21세기 경제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세계(경제) 회복이라는 공통이익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동료들 및 협력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미국은 피츠버그 회담과 그 외의 (필요한) 노력을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Translated by Soomee Kim  
G20 Research Group  
11 September 2009